

詩 한윤희(시인)
畵 이승문(화가)

우리는 잇고 살았다

붉은 해가 바다를 안고 떨어지고
어둠이 달려와 검은 숲을 만들면
밤새 꿈으로 세락된 명징한 세상이 오는 것을

세월의 때 켜켜이 묻은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떨어지고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도
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열두지신의 모습으로
아침빛 새날이 온다는 걸

벽난로 같은 햇별이 내린다

멀리 어두운 장막과
험거워진 문틈 사이로
광장 침탐의 맑은 종이 울린다

눈부시게 빛나는 청룡이 꿈틀거린다
갑옷 같은 비늘 깃을 쭉뺏 새우고
신령한 광채 구름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흉중에 숨긴 붉은 여의주를 꺼내
날카로운 발톱 사이로 굳게 움켜쥐었다

마천루에 묻힌
굳은 역사를 들추며
희망이 다음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잠시 잊혀진 꿈은
늦가을 화려하 사라진 왕잠자리처럼
라쉬 깨어나 눈부신 비행을 준비한다



2023 사우회 송년모임



국민의례

2023년도 '사우회 송년모임'이 12월 4일(월) 저녁 5시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3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고창근 회원의 사회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 오프닝 영상에는 다양한 '셀럽'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

어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국민의례와 묵념, MBC 社歌 제창에 이어 '뽀뽀'의 왕영은, '우정의 무대' 이상용,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음악캠프' 배철수, '사랑과 야망' 김용림 등 연예인들과 '장학퀴즈' 차인태, '뉴스데스크' 강성구, '카메라출동' 이상로, '대장금' 이병훈PD 등 과거 MBC의 성가를 올렸던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회고와 인사말이 담긴 영상에 회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박미나 MBC 경영 본부장



건배사 김우룡 회원



장명호 사우회장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자리는 92세 박기병 회원과 55세 이은숙 회원이 함께 한 '두 세대 모임'이지만 머지않아 '세 세대'가 자리를 함께할 것이 예상된다. 그날까지 사우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세계적 현상인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어 진실과 유리된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되는 현상-의 중심에 MBC가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MBC 안형준 사장은 박미나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최근 MBC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지만 임직



사회 고창근



회원 영접하는 회장단

원 모두 힘을 합해 잘 대처하겠다. 지상파와 SNS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62년 동안 인사동에서 삼삼동에 이르기 까지 많은 선배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다"고 회고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의 인사가 끝나면서 올 한 해 MBC가 역점을 뒀던 콘텐츠를 소개하는 영상을 감상했다.

이어서 축하케익을 커팅하고 김우룡 회원의 건배사가 있었고 만찬이 시작됐다. 부문별로 자리한 회원들의 정감이 듬뿍 담긴 답소는 두 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사무처에서는 유명한 대전 성심당 빵과 다이어리, 캘린더를 회원들에게 선물했다.



축하 케익 커팅



여성 회원들



초록회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11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sau.com)에 있습니다

- 차인태(고문) 100만원
- 오청엽(관리) 20만원
- 조명환(기술) 10만원
- 이용우(관리) 10만원
- 양승원(기술) 3만원
- 엄기영(보도) 100만원
- 박성숙(업무) 20만원
- 윤종옥(관리) 10만원
- 황인뢰(편제) 10만원
- 조강래(업무) 50만원
- 임두호(기술) 10만원
- 안병태(관리) 10만원
- 정 진(보도) 10만원
- 석남수(기술) 30만원
- 김용남(편제) 10만원
- 김용빈(기술) 10만원
- 이한익(기술) 10만원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강영은(ANN)
1985년 입사.
아나운서국, 문화사
업국, 시청자커뮤니
케이션부 등 근무.
2023년 퇴사.



▶김태우(보도)
1986년 입사. 뉴스
영상 취재부, 뉴스
영상 편집부 등
근무. 2023년 퇴사.



▶문무일(ANN)
1970년 아나운서
입사. 1979년 퇴사.



▶박혜영(편제)
1982년 PD입사.
라디오국, 사회공헌
실장 등 근무.
2021년 퇴사



▶최종라(관리)
1991년 총무국 입사. 자산관리국 국장 등 근무.
2023년 퇴사.

원고를 기다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전 같지 않은 분들이 뭔가 자기 얘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탓에 회보를 만들면서 원고를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쓰실만한 분이 냉정하게 사양할 때는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내용이 무엇이든 신고자 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일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인 올림.

제호題號 도안이 바뀝니다

MBC 사우회보

이번 호부터 사우회보의 제호 디자인이 본사의 CI에 맞춰 새롭게 바뀝니다. 글씨는 MBC의 공식 서체인 '새로움체'를 따르고, 색채는 Identity Color인 'MBC Purple'색을 차용합니다. 'MBC Purple'은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주신 본사 브랜드디자인 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구순: 김원기(기술) 35.3.3

팔순: 김광용(기술) 45.1.16 박근학(관리) 45.1.25 오인환(편제) 45.1.26
 김광곤(기술) 45.1.30 박수부(업무) 45.2.5 이해결(업무) 45.2.5
 양승원(기술) 45.2.20 이처경(기술) 45.2.28 이상림(전주) 45.3.1
 박종규(기술) 45.3.7.

고희: 김준수(기술) 55.1.19 신영철(보도) 55.1.27 신견옥(관리) 55.1.31
 이상근(기술) 55.2.1 이춘호(관리) 55.2.3 권병국(편제) 55.2.10
 이상로(보도) 55.2.14 박노홍(보도) 55.2.19 장철수(편제) 55.2.20
 이태술(편제) 55.2.20 박영태(기술) 55.2.25 권태석(관리) 55.2.26
 최영근(편제) 55.3.1 박래양(보도) 55.3.5 엄기정(관리) 55.3.9
 이상욱(관리) 55.3.13 양윤모(보도) 55.3.14 장동철(기술) 55.3.15
 박우성(편제) 55.3.15.

회갑: 이예나(관리) 64.2.15 양영석(관리) 64.2.25

결혼: 박혜영(편제) 아들 12/10 최성금(관리) 아들 1/27

부음: 이진숙(보도) 모친상 11/5 정 균(편제) 배우자상 11/7
 오정우(관리) 모친상 11/8 이은숙(관리) 시모상 11/20
 김광용(기술) 모친상 11/20 윤창호(편제) 부친상 11/23
 김영수(관리) 모친상 11/26 김영만(관리) 장인상 12/6
 이한익(기술) 배우자상 12/11 이예나(관리) 시부상 12/19
 구영희(보도) 장모상 12/21 이봉수(편제) 모친상 1/4
 한병우(보도) 모친상 1/2 이상욱(관리) 장인상 1/8
 엄기영(보도)/엄기정(관리) 모친상 12/25

연회비

평생회비: 강영은(ANN) 김태우(보도)
 문무일(ANN) 박혜영(편제) 최종라(관리)

2022년: 오수해(보도) 최근식(보도)

2023년: 강철호(편제) 김종연(편제) 박성배(편제) 박창순(대전)
 오정우(관리) 전용수(편제) 정영수(관리) 주원극(보도)
 최영호(편제)

2024년: 김광민(관리) 김귀현(관리) 김승수(편제) 김재홍(관리)
 박화진(편제) 염영수(편제) 정진민(관리) 조규보(관리)

2025년: 방영희(편제) 심준보(업무) 진경현(편제)

2026년: 강찬임(편제) 장기재(보도)

2031년: 김은휘(ANN)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익원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김학몽 경기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58-43
 김현종 경기 고양시 덕양구 꽃내음 3길 10 (여의도자이)
 박혜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자이)
 윤길용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이명숙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54-107 (연흥가나안빌라)
 최영근 경기 파주시 심학산로 384 (운정신도시 IPARK)

보도:곽성문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36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김영일 서울 강동구 진항도로61길 25-23 (더샵 파크솔레이유)
 김태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 (수진동, 삼정그린뷰)
 윤정식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35 (내대지마을푸르지오)
 이상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91 (목동, 현대파크빌)
 이장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92번길
 전재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05 (삼송마을동원로얄듀크)
 주원극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40 (오금동) 삼송비아티움
 하순봉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120 (상대동, 상대한보아파트)
 홍수선 서울 노원구 덕릉로 753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ANN: 강영은 서울 서초구 방배로32길 72 (방배동, 그랑씨엘 2000)
 문무일 서울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0 (북한산 노블리스빌)

기술: 오학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관리: 김학구 서울 용산구 백범로90길 26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박상준 대전 서구 갈마로212번길 53
 윤재복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112 (래미안 로이파크)
 최종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金敏植(관리)
 11월 13일 별세. 향년 83세.
 1964년 입사. 전무이사,
 대구MBC 사장, 사우회장 등
 역임. 1991년 퇴사.



박완규(보도)
 11월 18일 별세. 향년 66세.
 1982년 보도국 입사, 보도부
 국장, 보도기획센터장 등
 역임. 2015년 퇴사



高茂松(편제)
 11월 19일 별세, 향년 82세.
 1968년 PD 입사. 1981년 퇴사.
 목사 안수. 한국기독교공보사 사장
 역임



林秉燦(전주)
 11월 21일 별세. 향년 87세.
 1965년 전주MBC 보도국 입사.
 1980년 퇴사. 여수MBC 사장,
 전주MBC 사장 역임.



閔龍基(편제)
 12월 9일 별세. 향년
 89세. 1969년 PD
 입사. TV제작국장,
 제작이사, 프로덕션
 사장 역임.
 1992년 퇴사.



李榮喆(기술)
 12월 21일 별세. 향년 79세.
 1970년~1978년 여수, 목포
 MBC근무. 1978년 기술국
 입사. 1998년 퇴사.



金光白(보도)
 1월 6일 별세. 향년 80세,
 1968년 보도국 입사. 해설
 위원, 홍보심의위원 등 근무.
 2001년 퇴사

나의 MBC 시절

『PD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김우룡(편제)

▶전화 한 통으로 미국행 점보기를 타다

1973년 5월 16일은 우리 航空史에 한 획을 긋는 날이다. 1970년 미국 Boeing사가 개발한 최첨단 여객기인 보잉 747기 이른바 '점보기'를 대한항공이 도입하여 "비약호"라 명명하고 LA 노선에 취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국제선을 운항하던 DC10과 달리 컴퓨터로 운행하는 점보기는 '날으는 궁전' 이름 그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호사스러웠다.

신문에 대한항공의 점보기 취항을 홍보하는 광고가 커다랗게 실린 날, 나는 무작정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홍보 최고 책임자를 바꿔 달라'고 했다. 상대방은 홍보과장 李漢權이었다. 이 과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KAL에 스카우트된 엘리트였다.

"첫 취항하는 점보기를 타고 가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한 편은 <세계로 뻗는 대한의 날개>, 또 한 편은 <미국 속의 한국인>이다. 카메라맨과 같이 가야 하니 두 사람을 초청해달라."

"좋은 아이디어다. 의논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다. 'PD와 카메라맨 두 사람을 초청할테니 출국할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지금이야 '점보기 타고 미국 가는 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50년 전 상황에서는 미국 취재 여행 자체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첫째로 방송사 재정 상태가 어렵도 없었다.

MBC는 새 사옥 건설과 기자재 도입 등으로 빚더미에서 허덕였고 그래서 당시 이환의 사장은 보유 주식 70%를 LG, 쌍용, 해태 등 당대 굴지의 대기업 11개에 매각하고 지방사 주식도 일부 팔아서 겨우 사채 18억원과 은행 빚 6억원 그리고 차관 4억원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경영을 정상 궤도에 올렸던 때였다. 둘째로 여권 발급도 까다로웠지만 미국 비자 또한 받기가 쉽

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때의 여권에는 Destinatio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XXX, Passing through: Japan XXX로 명시돼 있다.

이 단수여권의 발급 날짜는 1973년 5월 9일인데 여권 유효기한은 6월 15일. 경유지는 일본. 반면 미국 visa는 아이(I) visa로 5년 multiple이었다.

항공사에는 주요 노선에 비행기가 첫 취항할 때 사회 명사나 공항 출입기자 그리고 주요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며칠 관광을 주선하는 관행이 있다.

이른바 '처녀 취항 초대손님'(inauguration flight guests) 제도다. 당시 점보기 취항은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에 이어 세 번째라서 국가적 이벤트였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취항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때 초대받은 명사 중에는 소설가 정연희, 시인 조병화, 수필가 전숙희, 아나운서 강영숙 등이 포함돼 있었다.

도쿄, 호놀룰루를 거쳐 LA로 가는 중 스텀어디스가 탑승객들에게 상장처럼 생긴 종이를 한 장씩 건넸다.

내용인즉 "귀하는 1973년 5월 16일 일부 변경선(date line)을 통과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한항공 사장 조중훈." 비행기 타고 미국 간 것이 가문의 영광이던 시절 이야기다. 호놀룰루에 잠시 기착했을 때는 모든 손님의 목에 레일을 걸어 환영했다.

일행은 LA 앰버서더 호텔(로버



정진 카메라 기자와

트 케네디가 피살됐던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다)에 여장을 풀고 디즈니랜드, 시월드, 그리피스 천문대 등 명소 관광에 나섰다. 나는 보도국 鄭進 카메라기자과 한 팀이 되 별천지 스케치에 관심을 쏟았다. LA의 일정은 초청 손님들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어딜 가나 '작품'을 위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디즈니랜드에 입장할 때였다. 직원이 우리 둘을 불렀다. '촬영 허가를 받았느냐'고 묻는다. 무슨 허가? 나는 어리둥절해서 직원에게 되물었다. 그 때만 해도 우리는 상업적 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에서 고궁을 찍고 싶으면 입장료는 커녕 방송사 깃발을 날리며 무상 출입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방송국에서 왔다. 이 방송이 나가면 디즈니랜드 홍보가 될 것이고 그 덕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촬영을 허가해달라"

대충 이런 요지로 설득하자 "그럼 한 시간 동안만 허가 하겠다."고 한다. '아이구 살았다. 일단 오케이 받았으니 맘놓고 찍어도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였다. 여직원 한 사람이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체크를 하더니 한 시간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카메라를 달라"고 한다. 말렸다가 나갈 때 찾아가라는 얘기였다.

세월이 흘러 해외 르뽀 프로그램이 많아졌지만 화면의 상당 부분은 차창을 통해서 찍은 것들이었다. 허락없이 내부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차 안에서 스케치했기 때문이다. 이때 제작 도구는 필모(Filmo)나 아리플렉스(Ariflex) 16mm 카메라였다. 뉴스와 다큐 제작에는 간편한 필모가 주로 쓰였다. ENG는 76년인가 처음 등장해서 표준 제작 기기가 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이후 우리는 미국에서 성공한 교포들을 만나기 위해 LA를 떠나 보스턴, 뉴욕, 하와이를 돌아서 2주 뒤에 귀국했다.

▶도쿄 장학퀴즈

"재일동포 학생들을 위한 장학퀴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대 예산이..."

"우리 회사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1977년 어느 날, '장학퀴즈' 후원사 선정직물의 李魯鍾(훗날 SK그룹 부사장)씨가 깜짝 제안을 했다. 1970년대에도 해외 제작 프로그램이 종종 있었지만 주로 카메라 구성물이나 프로그램의 일부 아이템



디즈니랜드에서 정연희 작가(左) 강영숙ANN(右)

을 홍콩, 대만, 일본 등지에서 찍는 것이 고작일 때 studio making 프로그램을 통째로 해외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부라부라 도쿄 한국인학교 등을 통해 출연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한편 MBC와 협력 관계에 있는 후지TV와 상의해 “제5스튜디오”를 빌려 쓰기로 했다. 교포 학생들이 우리말에 서툰 점을 고려해 사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들어 보냈다.

프로그램 길이는 90분으로 하고 중간 30분 정도는 재일 학생들의 藝技와 우리 동포의 활약상을 담기로 했다.

그리고 선경 측에 부탁해 평소 교분이 있는 일간스포츠의 吳重錫(나중에 조선일보로 전직하여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내고 주일대사관 공사가 됨) 기사를 동행시켰다. 당시 일간스포츠는 방송, 연예,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특집 장학퀴즈’ 녹화를 위해 車仁泰 아나운서와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뜻밖에 당혹스런 일과 부딪치게 된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MBC 도쿄지사 李樂鎔 지사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후지TV의 제5스튜디오 사용료 ‘50만엔’을 우리 돈 ‘50만원’으로 내가 착각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정확한 환율은 잊었지만 대체로 우리 돈이 일본 돈의 열 배쯤이라고 봤을 때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이실직고하자 이 지사장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더니 ‘내일 편성국 간부 몇 사람을 저녁에 초대

할 터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

다음 날 저녁, 복요리집을 거쳐 아카사카 바에서 2차까지 마무리했다. 이 지사장의 노련한 수완에 힘입어 스튜디오 사용료는 아예 무상으로 낙착되었는데 대신 내가 집행해야 할 기획비, 섭외비, 진행비 등은 모두 밥값으로 날리고 말았다. 후지TV에서 제일 큰 제5스튜디오에서 녹화하던 날, 기술감독을 위시한 전 기술스텝과 FD, 카메라맨까지 모두 일본인이어서 연출석 옆 자리에 이 지사장을 모셔놓고 ‘2元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후지TV스튜디오

Stand by, Q라는 외침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지사장이 동시통역을 해줬다. 녹화하는 전 과정을 통해 일본 스텝들은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일본 특집 장학퀴즈는 대성공이었다. 일간스포츠의 오 기자가 성공에 힘을 보탰다. 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방송사상 처음으로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 해외 원

정’이라고 대서특필하여 프로그램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썼다. 일본에 가서는 현지 특파원 기사를 장학퀴즈 제작 현장의 열기를 실감나게 전했다. 나중에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지면에는 ‘기획, 구성, 연출이 모두 대성공’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오중석 기자에게 재삼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3년 반 동안 장학퀴즈 연출을 맡았었다. 장학퀴즈를 처음 시작했던 張斗遠 PD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

장학퀴즈를 제작하는 동안 나는 “변화”에 주안점을 뒀다. 6개월마다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줌으로써 참신성과 호기심을 높이려 애썼다. <나의 유학기> <한 권의 책> <명사해설>같은 코너를 신설했고 여자 아나운서를 적절하게 교체하고 세트도 6개월마다 바꿨다. 특히 음악 문제는 金東錫 악단을 기용하여 생으로 처리했다.

MBC에서 20여년 동안 방송된 장학퀴즈는 EBS로 옮겨 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햇수로 따지면 50년이 된다. 방송사상 최장수 프로그램일 것이다. 또 하나의 기록은 장학퀴즈는 a single sponsored program이라는 점이다.

젊은이의 패기를 강조하고 국가 인재 양성에 열정이 컸던 선경의 崔鍾賢 회장의 강한 의지로 단독 스폰서로 일관했다.

제작 당시 최종현 회장을 단독 면담한 일이 있었다. 그는 ‘비용은 전액 지원할테니 김 PD가 한 석 달간 구미 각국의 우수한 박물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TV에 방영하고 그 뒤에 각급 학교에 그 비디오를 제공하면 청소년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당시로선 엄청난 발상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대형 기획물을 구상하고 있던 중에 나는 신설된 국제협력부의 ‘부장없는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로써 거인의 제안은 유아 무야 되고 말았으니 지금까지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다.

고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게 되자 졸지에 이 프로를 떠맡게 됐다. 이 무렵만 해도 電子 電飾 장치가 원시적이어서 문제판(세로로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상식이 적혀 있고 가로로 10점에서 50점까지 배점이 명시돼 있었다)을 일일이 손으로 작동했다. 문제판을 조작하는 출연자를 보조MC라고 불렀는데 주로 신인 탤런트의 몫이었다. 내가 제작하던 시절에는 최미나(허정무 감독의 부인이 됨), 이경진, 신신애 등이 이 일을 담당했다.

MBC소식

▶MBC 뉴스 유튜브 구독자 400만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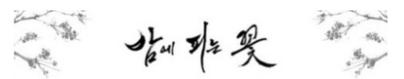
1월 2일 기준 유튜브 <MBC NEWS> 채널의 구독자 수는 4,003,516명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 중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YTN에 이어 2위를 달성한 것인데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의 뉴스 클립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MBCNEWS> 채널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 <MBCNEWS> 채널은 조회 수 면에서도 2022년 5월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2022년 11월과 2023년 1월의 조회 수는 4억 3천 154만여 회로 이는 전 세계 언론사 가운데 조회 수 1위에 해당한다.



▶2024년 MBC 드라마에 별들이 돌아온다!

MBC가 2024년에 방송할 명품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새해 첫 번째 드라마는 코믹 액션 사극 '밤에 피는 꽃'으로 이하늬가 출연한다. 이후 휴먼미스터리 드라마 '원더풀 월드'에는 김남주가, 대한민국 범죄 수사 드라마의 효시인 '수사반장'의 프리퀄 버전인 레트로 범죄 수사극 '수사반장: 더 비기닝'에는 이제훈이 출연한다.

휴먼블랙코미디 '우리 집'에는 김희선이 열연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29년 만에 MBC로 돌아온 한석규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해 흥행 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터뷰



김승월 (편제·이사)

‘서울 미디어대 학원대학교 특임 교수’, ‘한국시인 협회 사무총장’, ‘구상선생기념사업회 편집위원’, ‘가톨릭한국평신도협회 기획홍보 위원장’, ‘어린이 조선일보 객원 편집위원’ 김재홍 시인이 요즘 갖고 있는 명함이다. 그 명함 수만큼 그는 늘 바쁘다.

“저는 가톨릭교회의 봉사자,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문학연구자, 시인, 가장으로 살았는데요, 문학 쪽에서 보면 등단 20년 만에 첫 산문집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를 냈구요, 네 번째 시집 『돼지촌의 당당한 돼지가 되어』로 제 15회 시작문학상을 받았습니 다. 2017년, 세 번째 시집 『주름, 펼치는』으로 제3회 박두진 문학상 젊은 시인상을 수상한 뒤 5년 만 입니다. 가톨릭 평신도협의회에서 펴내는 계간지 『평신도』 지 편집장을 작년 3월까지 했고, 가톨릭 독서콘서트에서 수백 명 앞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다. 2022년 <광남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부문에 당선됐고, 한양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의 행사인 2022시그니스월드 총회에서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다. 행사 기념 노래를 작사했고 총회 성공을 위한 기도문도 지었다. 필자가 집행위원장으로 봉사하며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그는 문제점을 짚어가며 적절한 길을 제안하곤 했다. 큰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행사 직전의 마무리 점검회의에서 각

자 해야 할 일을 칠판 가득 적어가며 짚어주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97년 울산MBC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심의, 정책특임, 문화사업 일을 하다가 2010년 경력 공채사원으로 본사에 입성했다. 본사에서는 문화사업국, 홍보국에서 일하며 전시, 공연PD로 “하춘화 데뷔 50주년 리사이틀”, “MBC 창사 50주년 기념 방송체험전”등을 담당했다. 울산MBC에서 근무하던 2003년 어느 주말, MBC 야구중계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한화이글스 선수 ‘메히아’가 2루타를 쳐내고도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던 모습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왜소한 체구에 모자를 겹으로 쓴 어설픈 차림의 그 선수에 관한 느낌을 시 『메히아』에 담아냈다. 이 시로 그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그 뒤로도 그는 ‘스포츠 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한국 시단에서 ‘스포츠를 시에 접목시킨 독특한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포츠 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소재로 한 시도 발표했다. MBC TV에서 방송된 ‘아마존의 눈물’과 타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나름의 안목으로 객관적 기록물로서의 다큐멘터리를 옹호한 두 번째 시집 『다큐멘터리의 눈』을 발간했다.

“저의 시는 방송업무의 부산물입니다. 방송사 경험이 저의 작품과 문단 활동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하게 부지런한 그를 당시의 MBC는 더 이상 품지

못했다.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지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했다. 2018년 12월, 48세에 명예퇴직을 결행하고 전업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파주로 옮기며 생긴 작은 수익금과 명예퇴금을 털어 쓰며 인세, 원고료, 강의로 등을 모아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자신도 학업을 이어갔다. 가톨릭 봉사활동과 문단 봉사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시인협회는 1957년에 설립된 한국시단의 대표 단체다. 초대 회장은 유치환이었고 뒤로는 박목월 같은 거장들이 조직을 이끌었다. 현재 회장은 방송인 출신 유자효 시인이다.



국내 시인의 숫자를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치는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한 분만 회원으로 받으니 현재 회원은 1,600여 명뿐이다. 그는 시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출판 관련 사업과 각종 행사에 주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올해 계획을 물으니, ‘2024 MBC 소수첩’을 보여준다. 계획들이 작은 칸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5번째 시집 『기린으로 떠난 사람』, 첫 평론집, 학자로서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쓴 연구서 『현대시의 비대칭성과 상징구조』, 어른들을 위한 세계명작그림책 『일리아스』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펴낼 예정입니다. 저는 시인, 평론가, 문학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 1 때부터 열망한 ‘좋은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우회원들과 나눌 시를 부탁하니, 『돼지촌의 당당한 돼지』를 골



라 준다. 30여 년 전 그가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다닐 때 자취했던 마을, 안성의 돼지마을 ‘돈도리’(된섬)를 무대 삼아, 돼지 같은 존재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한다.

돈도리는 된섬으로
북적거리는 돼지촌

돼지를 먹은 돼지와
돼지를 버린 돼지가
끼리끼리 위로하며

한 길로 또각또각
울다가 웃다가
뛰고 달리며 사랑을 좇다가

삼십 년 동안 돼지는
죽지도 않고 꺾꺾거리며
꿀꿀거리며

소보다 싸고
소보다 작으며
소보다 빨리 자라고

된섬은 돼지들의 천국으로
꿀꿀거리는 돼지 소굴로

돼지는 돼지를 위하여 울고
돼지는 돼지를 위하여 죽고



김승월과 김재홍

김민식 회장의 영전에 바칩



박기병(관리)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 했으니 태어나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생로병사를 어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리 오만 방송 현장에서, 일선회 등 산동호회에서, 또 MBC 사우회에서 동고동락하던 그대의 영결식에 다녀온 뒤 새삼 인명재천의 큰 가르침에 고개를 숙이며 삼가 애도의 추모사를 띄우려니 착잡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구려.

그대를 보내면서 생전에 그대의 행적을 돌이켜 보니 더욱 애도의

만감이 떠오르는구려. 그대는 명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로 MBC에 입사해서는 경리부장, 총무국장 등 회사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기획이사, 전무이사, 대구MBC 사장, MBC에드컴 사장 등 경영인으로서도 지대한 업적을 쌓았고 현업에서 은퇴한 후에는 사우회장을 맡아 퇴직 사우들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랑스런 MBC맨’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도록 넉넉한 보살핌으로 사우회를 이끌었으니 그대가 MBC에 기여한 많은 공로를 어찌 말로 다 측량할 수 있겠소.

나보다 8년 아래 연치年齒로 평

소 나를 형이라 부르며 아우로서의 예절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던 그대의 바르고 멋진 행실과 인품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이 얼마나 기막히는 일이란 말이오.

우리의 등산모임인 ‘일선회’에서 박준하, 이건설, 윤여복 사우들과 깊어가는 만추절경을 함께 즐기고 담백한 소찬 중식을 나누자고 약속한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대가 이렇게 홀연히 떠나버리면 남은 우리들은 이 슬픔 이 허망함을 어떻게 달래란 말인가요.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순수하고 지혜로운 원칙주의자, 다정다감한 호인, 세상에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그대여, 떨어지는



낙엽처럼 떠나는 그대를 속절없이 먼저 보내야 하는 이 구순 노객은 마음 한쪽이 땡 뚫린 듯 허허로운 심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무지 망연자실할 뿐이오. 영정 속의 그대를 소리쳐 불러내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향불을 피우나니 이제는 천상에서 선, 후배 동료 후진들을 굽어보며 부디 부디 영면하소서. 상향尙饗!!

야구모자를 쓴 채 웃고 있을 뿐이네



윤동혁 (전 MBC PD)

그분의 죽음은 최근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현장에서 연출했던 형식적인 조문이 아니라 가슴이 많이 시리고 허전했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처음 겪는 느낌이었으니까. 추도문을 쓰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런 글을 쓸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커서 일단 사양했다. 시험을 봐서 MBC에 입사하지도 않았고, 6년 남짓 근무하다 떠나온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MBC의 레전드가 된 분을 애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 기회를 날리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급하게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용기 이사님은 나들이용 멋쟁이 안경에다 야구장에서나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하늘하늘한 스카프를 보일락말락 목에 두른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영정사진에서 모자 쓴 이는 처음 보았지만 너무 잘 어울렸으므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 모자를 가장 근사하게 쓰는 분일 거야. 집에 엄청 많더라고.”

장명호 형은 그 사진을 보다가 울

컱 치밀어오르더라고 했다. 오랜 시간 그분을 지켜본 윤건호 형은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게 그분의 품성을 저격했다.

“성격 고약하시지 이기적이지, 그 양반 눈 밖에 나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 다 알잖아.”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험담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는 게 그분 그릇의 크기와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게 아닐까.

‘민 이사’ 또는 ‘민다이’라고 불리는 그분에게 방송제작 현장은 아마도 형편없이 망가진 대동강 철교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온 피난길의 연속으로 보였던 것 같다. 미국 시사주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대동강 철교 피난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 위험한 곡예뿐이었으므로 강에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외나무다리였다. 너무 위험하니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렵가, 이런 논의는 사치였다. 거대한 KBS와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더 조직을 사랑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 생각이 워낙 견고했으므로 그분은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분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언제 폭삭 가라앉아도 이상할 것 없는 철교 위에서 ‘무섭지 않으셨나’고 물어보았더니 “떨었겠지. 그런데 스타일이 더

느껴지더라구” 대동강 철교는 공포보다 도전 쪽에 방점이 찍힌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의 감정 구조와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짧지 않은 시기, MBC라는 항공모함은 그분이 조종한 핵융합을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세상이 이기기만 하는 게임은 없다. 민다이가 군사정부 핵심세력에게 밀려서 대구 MBC 감사로 간 것은 진 게임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가 생애 첫 KO패를 당한 무대는 MBC를 완전히 떠나서, 황량한 별판에서였다. 성북도 군대도 없었으나 그분을 새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패배를 예견한 그분의 사업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낮은 용어인 ‘외주제작’이었다. MBC에서 하선했으니 이런 것이라도 해보자고 덤벼든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패배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발단은 무려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료를 보고 기사화시켜 주시오” 당시 나는 ‘국민연예지’라고 불리던 일간스포츠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연제가 외주제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난해하면서도 신문의 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박스 기사로 처리되어 연예면 톱을 장식했는데 솔직히 기사를 쓰면서도 내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 앞으로 20



년쯤 후에 그분이 주장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어쨌거나 1988년 무렵 그분은 ‘인풍프리덕션’을 설립했다가 모기업이 부도나자 허망하게 첫발을 헛딛게 되었다. 몇 년 후엔 독립제작사협회를 꾸렸으나 먼 바다로 나가기도 전에 유아무야 없던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방송사에 새 장을 열어보겠다고 두팔 걷어붙였던 그분의 의욕은 황무지에 씨를 뿌린 선각자의 철이른 예견이었다.

그분이 고집스럽게, 폭발적으로 밀어붙였던 일들이 지금 MBC 유전자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아예 즐기세포의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은 야구모자를 쓴 채 웃고 있을 뿐이다. 별은 하나도 뜨지 않아서 깜깜한 밤이었으나 마음이 그리 춥지는 않았다.